



## 황성복 선생

황성복 선생은 1918년 8월 15일에  
원릉변강 그로테스크구역 자유훈에서 출생하시  
였다. 향촌에서 초급을 마친후 블라지워스도코  
시에 가서 사대에 속한 노동학원에 입학하여  
3년간 수료한 다음 모스크바에 있는 군사학원  
에 입학하여 1938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당시  
군사 칭호는 중위였으며, 졸업생으로 파견되어

정규 복대에 초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몇달  
 지나지 않아 원릉에서 한인들을 강제 어둡히며 1937  
 년에 중아시아로 옮겨 음과 관련하여 황선생은 군대  
 에서 제대 식혀 중아시로 파견하였다. 중아시아의  
 프렉트 공화국 샤아르간은 시에 도착한 황선생은  
 샤아르간은 시 사대에 입학하였다. 동사대라고  
 페르가나시 로 어둡히며 간과 관련하여 선생은  
 페르가나시에 가서 1942년에 사대를 마감하였다.  
 사대 졸업후 대학 파견에 따라 선생은 다브  
 겐트주 상철칙구역에 고종학교 교장으로 1942  
 -1945년까지 일하시였다.

1945년 8월에 북-일전쟁이 시작 되자 소련군에  
 초로 되어 소련군 제 25군단 소속으로 군사총영관으로  
 만주, 북한 해방전후에 합전하였다. 1945년 9월에  
 평양에 주둔한 소련군 25군단 사령부 총영관으로  
 1948년까지 북부한, 북한에서 소련의 철퇴하자  
 소련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북한 연변군에 제정  
 되어 연변군 제 1사에 군사총교관 총영관으로  
 근무하시다가 1948년 말부터 평양 군사령부  
 학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1949년 부터 조선  
 연변군 최고 사령부 군사교육처 부처장으로 계시다가  
 1950년에 동족 상잔이 시작되자 1950년 6월  
 25일부터 연변군 제 1군단 참모장으로 북부하시다가  
 최고 사령부에 송환되어 일반참모장 직위에 계시

다가 최고사령부 군사교육처 처장 직위에서 열심히  
 일하시였다. 1954년부터 1956년에 소련에 귀  
 환할 당시까지 만경대 유가족학원 원장으로  
 일하시였다. 조선인군 군사청호 - 중장, 소련군대  
 제대 당시 소련군 군사청호 - 중좌. 소련에 귀환  
 하신후 모스크바에서 제대 후속하시인 중앙시아  
 다스켄켄에 포착하여 극라로북의 사택으로  
 장발인 연노금 물레로 해질받았다. 그러나 아찍  
 원기 성대 하신 황선생은 집에 앉아 쉬지 않고 다  
 유켄호시 언변위원회 주책관리부 계층에서 계속  
 1960년로 날까지 열심히 근무하시였다.

황선생은 1968년에 별적 연금생육속하여 가치고  
 현재 다유켄호시에서 목상 대하게 누다운 과손  
 들 거느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고 있다.

황선생은 소련 조국 전쟁 훈장 1급 수여  
 조선국기 훈장 2급 "  
 조선 조국 독립훈장 2급 "  
 기타 소련 및 조선 20여개 수여.  
 12개달

다유켄호에서 광영 